천주교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 월간지

가톨릭 직장인

VOLUME 285 I FEBRUARY 2021

가톨릭 직장인

천주교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 월간지
2021년 2월호 / 통권 285호

발행일 2021년 2월 1일
발행인 염수정
편집장 노우식
편집 및 디자인 직장사목팀 편집부
인쇄 상경커뮤니케이션즈
발행처 천주교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
04537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3 교구청 별관 5층
전화 02-727-2078 팩스 02-753-3792 홈페이지 www.catholicworkers.or.kr

Copyright 2021©천주교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
월간지 <가톨릭 직장인>에 실린 글, 그림 및 사진 등은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Contents

VOLUME 285 I FEBRUARY 2021

Editor's Note 4

특집 6 한국교회의 두 기둥, 피의 순교자와 땀의 증거자

함께 읽는 성경 12 테살로니카인들에게 보낸 둘째 서간

전례와 생활 16 영혼의 상처를 위한 특효약
20 '성인' 이름을 알면 영성이 보인다

교회의 가르침 22 기도학교
28 신앙인들이 알아야 할 생명윤리 15

신앙과 삶 32 코로나19 시대의 슬기로운 가정생활

듣다 읽다 보다 34 고전음악을 듣다
40 신앙의 땅, 이스라엘을 거닐다
46 신앙인의 눈으로 읽는 고전 문학
52 티나씨의 티비보기
54 성미술 이야기

News & Views 58 후원방법 및 소식

THE COVER
안양 수리산 성지 內 최양업 신부의 부친 최경환 프란치스코 성인 무덤 (2020.12月)

안양 수리산 성지, 최경환 성인 고택

참 질깁니다. 이렇게까지 오래갈 줄은 몰랐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이 1년을 넘겼습니다.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과 보급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지만, 사람들의 몸과 마음이 지쳐갑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 부인이 종일 입고 있는 무릎 나온 싸구려 추리닝 바지가 자꾸 눈에 거슬려, 좋은 바지 좀 입지 그러느냐고 한마디 하려다가 문득, 미혼의 직장동료 시절 아내가 회사에서 가장 옷 잘 입는 여직원이었다는 걸 기억하고는 울컥했다는 어느 형제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021년 1월 현재, 전 세계가 아직도 코로나19 사태로 휘청대고 있다 보니 재택근무하는 직장인들도 많고, 출근 안 하는 남편과 등교 안 하는 아이들 옆에서 24시간 불침번 서는 기분이라는 자매님들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집 안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말만 하면 서로 싸우는 일이 잦아졌다는 부부나 가정들도 참 많습니다. 괜스레 안타깝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코로나 우울증으로 마음들이 팍팍해서 그런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보다는 부부 사이에 또는 가족들 사이에 말하는 방식, 대화하는 방식이 이미 패턴화되었다는 뜻입니다. '패턴'은 외국어를 익히는 데는 유용하지만 말싸움의 경우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 부정적인 대화 '패턴'을 사랑과 이해가 가득한 대화로 바꾸기 위한 중요한 방법으로 심리학서들에서 꼽는 몇 가지를 요약해 보면, ① 지금까지의 대화방식을 바꾸겠다는 두 사람 간의 동의, ② 서로 이십 분씩 번갈아 길게 충분히 말하고 들어주기, ③ 대화 도중에 언성을 높이는 쪽 무조건 벌금, ④ 상대방에 대한 지적 일절 금지, 오히려 내 단점을 먼저 밝히고 개선법 논의하기, 등입니다. 물론 관계든 뭐든 개선을 위한 쉬운 방법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깨달음을 주는 방법들입니다.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과 보급으로 세계를 놀라게 한 역병도 분명 올해 안에 극복되리라 믿습니다. 그동안 방역수칙 잘 지키시면서 몸과 마음들 지치지 말고 건강하게 잘 유지하시길, 또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도 건강하게 유지하시길, 그리고 하느님과의 관계도 잘 유지하시길!

노우식 스테파노敎

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 본부장

한국교회의 두 기둥, 피의 순교자와 땀의 증거자

땀의 증거자 최양업 토마스 3

조한건 프란치스코 신부_ 한국교회사연구소 소장

김대건 신부는 2021년 탄생 200주년을 맞이하여, "유네스코 세계 기념 인물"로 선정되었다. 그리고 한국교회 역시 이러한 뜻깊은 해를 맞이하여 '희년'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두 번째 한국인 사제였던 최양업**도 동갑이었다. 따라서 2021년 '희년'을 준비하면서 이분들을 기억하여 **"한국교회의 두 기둥, 피의 순교자와 땀의 증거자"**라는 제목으로 두 분의 삶을 번갈아 조명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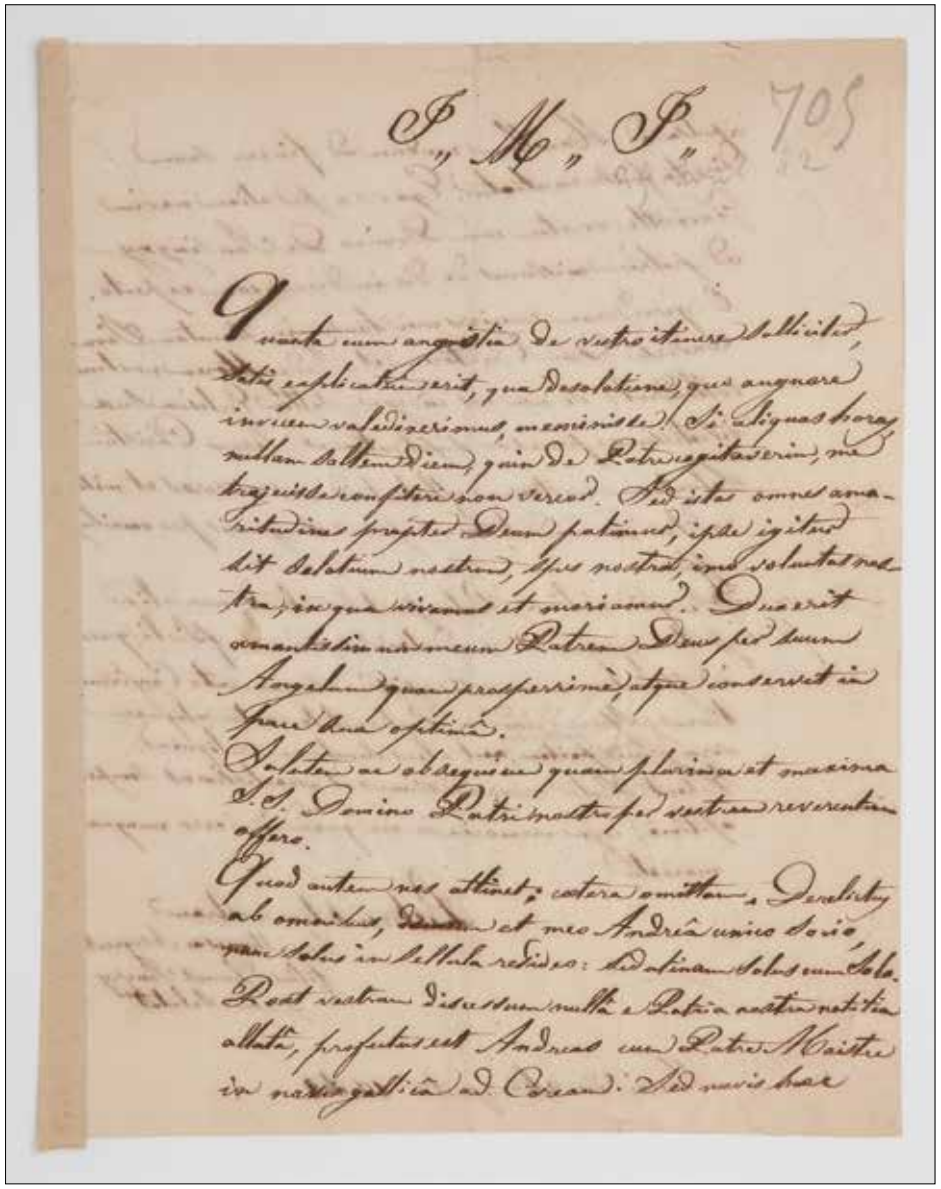
김대건 신학생이 에리곤 호를 타고 남경 일대를 답사하며 성장통을 극복하고 용덕(勇德)의 특별한 은총을 받는 동안, 최양업 신학생은 브뤼니에르 신부와 함께 파보리트호를 타고 조선으로 들어가는 입국로를 모색하고 있었다.

극동 대표부의 책임을 맡고 있었던 리브와 신부는 그때의 상황을 파리에 보고하고 있다.

"… 브뤼니애르(Bruniere)신부는 우리와 남은 조선학생(최양업)을 교육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는 이 학생에게서 많은 재능, 무엇보다도 좋은 판단력을 발견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브뤼니애르 신부는 그를 가르치기에 아주 적절한 학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리브와 신부가 (파리) 지도자들에게 보낸 서한' 중에서, 1842. 4. 1 마카오)

신학생 시절 스승들의 편지를 보면, 항상 김대건보다는 최양업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다. 학교 때 성적만으로 한 인물을 평가할 수는 없다. 더군다나 성인과 가경자를 우리의 기준과 우리 눈의 잣대로 어떻게 보겠는가?



최양업 신부의 첫번째 서한 (1842. 4. 26) I 출처: 한국천주교순교자박물관

한국교회의 두 기둥, 피의 순교자와 땀의 증거자

땀의 증거자 최양업 토마스 3

김대건은 세 소년 중에 가장 늦게 선발되어 라틴어 기초를 배울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모방 신부도 처음에는 두 소년만 보내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뒤늦게 처음 배우는 라틴어 학업을 따라 가느라, 또 마카오의 무더운 기후와 이국의 음식에 적응하면서 각종 풍토병의 위험 속에서, 당시로서는 생존하는 것이 공부이고 살아남는 것이 선교였을 것이다.

동료인 김대건이 매스트르 신부와 함께 떠나고, 마카오에 홀로 남아 파보리트호를 기다리면서 자신의 첫 스승에게 보낸 편지가 최양업의 첫째 편지이다. 당시의 상황을 보도록 하자.

"… 모든 사람들이 저에게서 떠나고 또 마침내 저의 유일한 동료 안드레아와도 떨어져 있는 저는, 작은 방에 외톨이로 남아 있습니다만 하느님과 홀로 있기가 소원입니다. … 안드레아는 매스트르 신부님과 함께 프랑스 군함(세실 함장이 지휘하는 에리곤호)을 타고 조선으로 떠났습니다. … 저는 파보리트(파쥬 함장이 지휘하던 함선)라 불리우는 다른 군함을 타고 드 쟝시니(중국 주재 프랑스 외교사절)씨와 함께 조국으로 가기로 되어 있어서 하루하루 그 군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저의 동포들이 마침내 시온성으로 회두하여 우리의 창조주시요 구세주이신 하느님을 찬송할 날이 언제쯤 올 것인가요! 만일 우리가 부당하다면, 적어도 당신의 사랑하는 성교회의 간곡한 기도와 애원으로 인하여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를 위하여 쏟으신 당신의 피를 기억하시어 가련하고 불쌍한 우리를 굽어보시게 되기를 빕니다. …"(최양업 첫째 편지, 1842.4.26. 마카오)

전후 맥락을 보면, 당시 마카오 대표를 새로 맡은 리브와 신부는 세실 함장의 요청에 응하여 조선으로 가는 에리곤호에 김대건과 매스트르를 배정해 주었고, 최양업 신학생 역시 파보리트호를 통해 조선으로 들어갈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양쪽 모두 실패하고, 결국에는 길림에 있는 '소팔가자' 교우촌에서 새 대목구장인 페레올 주교와 함께 모이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각기 다른 함선을 타고 가던 두 신학생은 그 해 8-10월 사이에 백가점 교우촌에서 잠시 상봉하였다. 당시의 상황을 최양업 청년과 함께 항해하였던 브뤼니에르 신부님의 편지를 통해서 엿볼 수 있다.

"… 대표부에서 공부한 2명의 조선인 학생 중 한명(김대건)은 이미 에리곤호 함장에게 보내졌고, 또 하나의 학생(최양업)은 저와 함께 저의 포교지(만주)로 가서 거기서 조선 입국을 시도하기로 하였습니다. … 8월 23일에야, … 오송(吳淞)이란 작은 도시 앞에 닻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 이 지역에서 우리가 에리곤호를 만나게 되었으니 얼마나 놀라고 기뻤겠습니까!"(브뤼니에르 신부 편지, 1842.10.22. 대장하)

각기 다른 임무로 떠난 파리외방 전교회 선교사들과 두 조선 청년은 상해지역에서 서로 만났고, 김대건은 조선입국로 개척을 위해 동북로 길인 압록강을 건너갔다가 돌아오고, 다시 서북로 지역을 통한 이른바 훈춘을 통한 여행을 다녀왔다. 반면 최양업은 소팔가자 교우촌에서 지속해서 신학수업을 받고 있었다.

달레의 『한국천주교회사』에는 조선의 첫 번째, 두 번째 사제에 대한 신학생 시절 때까지의 평가를 다음과 같이 내리고 있다.

"이 정찰여행(훈춘 여행)이 끝난 후 김 안드레아는 몽고(팔가자)로 돌아가 페레올 주교, 메스트르 신부, 그의 친구 최 토마스를 만났다. 이 두 젊은 조선학생은 장래가 가장 촉망되는 사람들이었다. 그때까지는 병약하던 안드레아의 기질이 나아졌다. 육지와 바다에서 겪은 그의 여행은 그의 육체적인 힘을 발달시켜 줌과 동시에 그의 기력과 타고난 마음의 대담성을 왕성하게 하고 원숙하게 하여 주었다. 천주께서는 그의 동료 최 토마스에게는 같은 씩씩한 성격을 주지 않으셨다. 조용하고 내성적인 그는 어려운 여행에는 덜 적당한 것 같았다. 그러나 그의 열심, 그의 뛰어난 재능, 그리고 행동이 꾸준하고 규칙적인 그의 행동은 그때부터 그가 나중에 얼마나 거룩한 사제가 될 것인지를 보여 주는 것이었다. 그들은 둘 다 23세였고, 신학공부를 끝냈었으며 신앙과 신심이 날로 커가고 있었다. 그러므로 페레올 주교는 그들을 성직에 올림으로써 그들의 소원을 채

한국교회의 두 기둥, 피의 순교자와 땀의 증거자

땀의 증거자 최양업 토마스 3

워주는 것을 기뻐하였다. 이 해에 페레올 주교는 그들에게 차례로 부제품까지 주었다. 나이 때문에 아직 사제품을 줄 수가 없었던 것이다. 페레올 주교와 그의 선교사에게는 조선 성직자의 선구자를 양성하는 데 바친 정성어린 보살핌 가운데 1844년이 빨리 흘러갔다. 이 역사의 계속을 보면 이 사업이 얼마나 구원의 풍성한 열매를 맺었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달레, 『한국천주교회사』 하권, 59-60쪽 중에서)

페레올 주교는 조선 입국로 개척에 무모할 정도로 용감했던 김대건에게 먼저 서품을 주고 함께 입국하려고 하였다. 서품은 성적순이 아니었다. 페레올 주교 입장에서는 선교사가 한 명도 없는 조선 선교지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우선 순위였다. 따라서 김대건 신학생을 통해서 입국 방법을 모색하게 하고, 빠른 시기에 서품을 주어 입국하면서 동시에 최양업도 조선에 들어와서 서품을 줄 수 있을거라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김대건 신부는 13개월만에 순교로 떠나 보내고, 최양업은 입국이 여유치 않아 무려 4년 남짓 늦은 1849년에 사제서품을 받고 겨우 조선에 들어올 수 있었다.

한편 극동대표부 책임자였던 리브와 신부는 프랑스에 있던 "성모성심회"에 스스로 입회함과 동시에 최양업 신학생이 회원으로 함께 가입하도록 하였다.

"저는 오래전부터 '성모성심회'에 가입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 또 우리 학생 중 두 사람이 성모성심회원이 되고자 하는 의사를 제게 표명하였습니다. 하나는 사천성 출신의 앵베르 주교의 학생으로, 앵베르 주교의 지시로 포교지들을 위해 길고 어려운 여행들을 하였는데, 이름은 범 요한입니다. 또 하나는 아직 성품을 받지 않았다면 곧 받게 될 것이고, 또 그의 덕행과 재능으로 조선에 큰 희망이 되고 있는 조선인 학생으로 이름은 최 토마스입니다."(리브와 신부가 데쥬네트 신부에게 보낸 서한, 1843. 6월. 마카오)

이처럼 최양업은 신학생 시절 '성모성심회'와 '전교회'에 가입하면서 사제로서 지녀야 할 신심과 성무활동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부제서품을 앞두고 있던 최양업 신학생의 편지를 보면서 그가 사목자로서 지향하고자 하였던 마음을 들여다 보자.

"…(저는) 이곳에서 지금 벨린 명의 주교님(페레올)과 매스트르 신부님과 안드레아 형제와 함께 있습니다. 언젠가 좋으신 하느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저의 동포들을 만날 행운이 저에게 다가오기를 하루하루 바라면서 머물러 있습니다. … 저의 부모들과 형제들을 따라갈 공훈을 세우지 못하였으니 저의 신세가 참으로 딱합니다. 그리스도 용사들의 그처럼 장렬한 전쟁에 저는 참여하지 못하였으니 말입니다. 정말 저는 부끄럽습니다! 이렇듯이 훌륭한 네 동포들이며, 이렇듯이 용감한 네 겨레인데, 저는 아직도 너무나 연약하고 미숙함 속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최양업 둘째 편지, 1844. 5. 19 팔가자)

묵상

일상에서 꾸준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새해부터 꾸준히 하기로 마음 먹은 일을 지속적으로 해내고 있는가? 최양업 신부는 자신의 지향대로 11년 6개월동안 조선 교우촌을 다니면서 힘이 다할때까지 성무활동을 해냈다.

테살로니카인들에게 보낸 둘째 서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서신

허영엽 마티아 신부_ 서울대교구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1. 테살로니카 신자들에게 보낸 둘째 서간의 배경은 무엇인가요?

사도 바오로는 이 서간에서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신자들이 오해한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권고하고자 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의 분위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실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당시에 많은 초대교회 신자들 사이에는 재림의 날이 임박했다는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테살로니카 공동체에 보낸 첫째 편지와 둘째 편지의 주제는 비슷합니다. 사도 바오로는 첫 번째 서한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부연하고자 테살로니카 신자들에게 둘째 편지를 썼습니다. 데살로니카 신자들에게 "누가 예언이나 설교로 또 사도들이 보냈다는 편지를 가지고 주님의 날이 이미 왔다고 말하더라도, 쉽사리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고 합니다(2,2 참조). 따라서 사도 바오로는 주님의 재림에 대해 분명하게 밝혀야 했고 재림을 맞을 적합한 준비에 관해 신자들에게 이해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종말과 재림에 대한 잘못된 교리로 인해 신자들이 많은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2. 누가 어디서 이 편지를 썼나요?

사도 바오로가 직접 이 편지를 썼다고 볼 수 있는 성경의 대목이 있습니다. (1테살 1,1; 2테살 2,5 그리고 3,17 참조) 사도 바오로는 이 서한을 제2차 선교여행 동안 고린토에서 테살로니카 신자들에게 썼을 것입니다. 그 시기는 대략 AD. 50~51년 경입니다. 사도 바오로는 신자들의 신앙을 강화하고 종말과 재림에 대한 교리적인 오해를 바로잡고자 이 서신을 썼던 것입니다.

3. 테살로니카 신자들에게 보낸 둘째 서신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테살로니카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신은 신자들의 믿음을 칭찬해주고, 갑자기 찾아올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해서 늘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하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말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도 바오로는 사악한 사람들이 재림 때에 주님의 벌을 받을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둘째 서신에서는 재림이 이미 일어났다고 하는 잘못된 주장을 바로잡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배교가 있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사도 바오로는 테살로니카 공동체 신자들에게 충실히 남으라고 격려합니다.

- **인사와 감사와 올바른 교회의 모습에 대해 조언합니다.** 테살로니카의 신자들이 믿음 생활로 인해 고통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바오로는 신자들을 위로하며 결코 낙심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1장)

- **잘못된 교회와 무법자들에 대한 경고의 내용입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해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의 말에 결코 현혹되지 말라는 조언과 함께 주님의 재림 전에는 반드시 두 가지 현상이 먼저 있을 것이라는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많은 신자들이 주님을 배교하는 일이 나타날 것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무법자가 나타날 것인데, 그는 사탄의 작용으로 온갖 힘을 가지고 거짓 표징과 이적을 일으킬 것이라고 설명합니다.(2장)

- **사도 바오로는 신자들에게 낙심하지 말고 계속 좋은 일을 하라고 권고합니다.** 이 편지에 적어 보내는 말에 누가 순종하지 않거든, 그를 주

목하여 그와 상종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하여 그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원수처럼 여기지는 말고 형제처럼 타이르라고 조언합니다.(3장)

테살로니카 신자들에게 보낸 둘째 서신은 주님의 복음을 믿는 신자들은 재림과 심판의 날에 대해 절대로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위로와 함께 일상의 삶을 살 때에는 항상 부지런하고 성실한 자세로, 살아야 한다는 당부의 말씀을 합니다.

한달 동안 성경읽기

☐ 1주간	☐ 2주간	☐ 3주간	☐ 4주간
2테살 1장	2테살 2장	2테살 3장	2테살 1장, 2장, 3장

시간이 나는 대로 짧게 혹은 길게 자신의 시간에 맞게 읽으십시오. 장소는 어디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금이라도 매일 읽고 작은 소리를 내면 더 좋습니다. 반복해서 여러 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읽기가 어려우면 녹음된 복음을 들어도 됩니다(가톨릭 인터넷 굿뉴스 '소리 성경'). 다 읽으시고 아래의 문제를 풀어보세요.

테살로니카인들에게 보낸 둘째 서간을 읽고 다음 문제를 풀어 봅시다.

① 서간의 시작에서 테살로니카 사람들의 교회에 인사하는 세 명은 누구입니까?(1,1)

② "우리는 여러분이 그 모든 (　　)와 환난을 겪으면서도 보여 준 (　　)와 (　　) 때문에, 하느님의 여러 교회에서 여러분을 자랑합니다."(1,4)

③ 하느님께서는 정녕 의로우시어, 신자들에게 환난을 겪게 하는 자들에게 무엇으로 갚는다고 했나요? (1,6)

④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께서는 타오르는 불에 휩싸여 오시어, 어떤 이들에게 벌을 주신다고 하나요? (1,8)

⑤ 누가 예언이나 설교로 또 사도들이 보냈다는 편지를 가지고 주님의 날이 이미 왔다고 말하더라도, 어떻게 대처하라 했나요? (2,2)

⑥ 누가 무슨 수를 쓰든 여러분은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먼저 (　　)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　　)가 나타나야 합니다 (2,3)

⑦ 주님께 사랑받는 형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때문에 늘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　　)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여 구원하시려고, 여러분을 첫 (　　)로 선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2, 13)

⑧ 하느님께서 신자들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여러분의 힘을 북돋우시어 무엇들을 하게 해주시나요? (2,17)

⑨ "형제 여러분, (　　)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처럼 빠르게 퍼져 나가 (　　)을 받고, 우리가 고약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구출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3,1-2)

⑩ 사도 바오로는 어떤 사람들을 멀리 하라고 했나요?(3,14)

영혼의 상처를 위한 특효약

전호엽 프란치스코 신부_ 사제평생교육원 부원장

해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고 많은 사람들의 몸과 마음이 지쳐갑니다. 그나마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를 치료하기 위한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과 보급이 우리에게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해줍니다. 고통에서의 해방이 절실한 이 시기에 그래도 우리가 영적인 치유에서만큼은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교회의 오랜 전통을 통해 확립한 가장 강력한 백신이며 치료제인 고해성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해성사를 통한 회복의 과정

일곱 가지 성사 중에서 고해성사는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 형식이 가장 많이 변화된 성사로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 특징을 들 수 있습니다. 첫째는 공동체 안에서 거행되던 참회 예식의 형태가 개별적으로 사제에게 고백하는 형식으로 변화된 것, 둘째는 인생에 단 한 번만 성사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졌던 것에서 자주 성사에 참여할 수 있는 관행으로 이행된 것, 마지막으로 엄격하고 오랜 기간 속죄하던 관습에서 가벼운 보속을 하는 관행으로 변화된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만을 보더라도 현대에 우리가 참여하는 고해성사가 과거와 비교하여 얼마나 편리하게 변화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고해성사의 본질적 요소

이러한 변화의 흐름 가운데서도 뼈대를 이루는 기본적 구조는 변하지 않고 유지되어왔습니다. 이 구조는 두 가지 핵심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회개하는 사람의 행위, 곧 통회와 고백과 보속이고, 다른 하나는 교회의 중개를 통한 하느님의 행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하는 사죄입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1448항 참조). 즉 **'하느님의 은총'**과 **'인간의 적극적인 협력'**이 이 성사 안에서 두 개의 기둥을 이루고, 그것을 구성하는 네 가지의 필수 구성요소가 이 고해성사를 이룹니다.

죄에 대한 아픔과 결심을 동반한 통회

통회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아픔과 뉘우침에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겸한 마음의 자세입니다(고해성사 예식지침 6항 참조). 이는 생활 전체의 근본적인 방향의 전환이며, 우리의 마음 전체가 하느님께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 즉 전인적인 변화가 절대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통회가 단순한 후회이거나 막연한 애석함이어서는 안 됩니다. 통회 없는 고해성사는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고 결국, 같은 잘못을 반복하도록 이끌기 때문입니다. 정직하고 진실한 통회만이 악의 유혹에 가장 확실한 백신이 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자비에 열어 보이는 고백

마음 안에서 행하는 내적 성찰만으로는 죄악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자신을 해방시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뉘우치는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하느님께 고백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은 교회 신앙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연대성을 가지게 되므로 신앙인의 죄는 개인적인 차원에 머

물지 않고 교회에도 상처를 입힙니다. 그런 이유에서 교회를 대표하는 사제 앞에서 하느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간혹 사제 앞에서의 고백이 불편하게 여겨질 수 있으나 사제가 하느님의 죄 사함을 선포해주는 대리자임을 기억하고 하느님의 자비에 마음을 연다면 고백이 한결 수월해질 것입니다. 고백하지 않고 감추는 것은 악의 뿌리에서 비롯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자주 작은 잘못까지 고백하는 습관은 우리의 양심을 기르고 나쁜 성향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악에 대한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죄를 치유하고 생활을 개선하는 보속

한 번의 고해성사를 통해 죄악으로 기울어지는 인간의 경향이 모두 근절되지는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나가며 내면의 전환을 이루어가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보속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죄로 손상된 내적 질서를 회복시켜주고 과거의 생활을 개선하도록 이끌어줍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보속을 실천하는 것이 죄의 용서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하느님께 드리는 감사와 결심의 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치우듯 하지 않고 정성을 들여 실천할 때 비로소 우리의 영적 상처도 더 잘 아물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한 하느님 용서의 표징으로서 사죄

하느님의 인자함에 자신을 스스로 내어 맡기는 죄인에게 하느님은 무한한 자비를 베푸십니다. 사제를 통해 선포되는 사죄경은 이 성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용서가 하느님의 자비에서 비롯되었음을 알려주고, 그것이 교회의 직무를 통해 주어짐을 표현합니다. 이를 통해 고백자는 다시 하느님, 그리고 교회와 화해를 이루어 은총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복음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마르 1,15)”라고 외치며 악에 대항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우리를 일깨우지만, 나약한 우리의 본성은 자주 이와 반대되는 것으로 향하곤 합니다. 여전히 세상의 많은 유혹이 우리의 영적 면역체계를 흔들어놓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느님의 사랑은 용서하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고해성사를 통해 드러나는 잃은 양을 찾아 나서시는 아버지의 사랑, 집 떠난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인자함이 바로 죄로 인해 상처 입은 우리를 낫게 하는 특효약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성인' 이름을 알면 영성이 보인다

카이사리아의 성녀 도로테아
St. Dorothy of Caesarea (축일: 2월 6일)

박희전 루케시오 신부_ 작은형제회

초대 『로마 순교록』에 따르면, 순교자인 도로테아 성녀는 4대 성녀 가운데 한 명으로 손꼽힙니다. 교회 전승에 따르면 그녀는 카이사리아(Caesarea) 출신의 초대 그리스도교 신자 가운데 한 명으로 덕행이 뛰어난 동정녀였다고 합니다. 그녀에게 청혼한 카이사리아 총독을 단호히 거절하였고, 이에 총독은 앙심을 품고 그녀를 박해하려고 악표양을 지닌 처녀들을 보냈으나, 되려 그들이 회개하였다고 합니다.

도로테아 성녀는 심한 박해를 받으면서도 하느님께 의지하며 굳셈을 키워나갔다고 합니다. 도로테아 성녀는 항시 기도를 하였다고 하며, 그 어느날 천사 한 명이 나타나서 그녀에게 여러 꽃과 과일들을 선물했다는 전설이 남아 있습니다. 당시에 함께 하였던 카이사리아의 성 테오필로 사제는 도로테아 성녀의 신앙에 감화되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였다고 합니다. "천국에 가면 그곳의 장미꽃을 보내주지 않겠소?" 그녀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였고, 그리고 그녀는 순교를 하였습니다. 정말로 어디에서부터 그녀의 이런 열정이 나오는 것일까요? 저는 그녀의 이름에 주목해 봅니다. 도로시, 그 이름에 숨겨진 비밀은 무엇일까요?

도로시라는 이름은 원래 그리스어 **Δωροθεος** (Dorotheos, 도로테오스), 그 뜻은 "하느님의 선물(gift of God)"이고, 선물이라는 뜻의 그리스어 명사 '도론' **δωρον** (doron) "gift", 그리고 하느님을 뜻하는 남성명사 테오스 **θεος** (theos) "god"가 합쳐진 합성명사입니다. 이것을 거꾸로 하면 테오도로Theodore인데, 이 역시도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그리하여 둘 다 모두 **하느님의 선물이 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도로시는 이 도로테오스(Dorotheos)의 여성형을 영어식 표기로 변환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도로테아(Dorothea)라는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선물이 된다는 것은 어떤 영성적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은, 그녀가 받은 은사가 세상 사람들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과연 인간적인 교육과 발달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누가 그것을 100% 하느님의 선물이 맞다고 하겠습니까? 할 수 있더라도, 그냥 하는 척에 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가 받은 은사가 100% 하느님으로부터 왔다고 인식하고, 그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하느님의 선물이 되는 사람입니다. 또한 그 은사(선물)로 인해 공동선이 증진되고, 공동체가 성장하는 모멘텀을 마련할 때, 그 사람을 두고 하느님의 은사가 된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자신이 받은 은사를 그냥 자신의 것으로만 하지 않았기에 그 사람이 진정 '하느님의 선물'이 된 사람이라는 점이 깊이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나 재능이 궁극적으로 하느님과 공동체에 되돌려질 것을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1서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마다 받은 은사에 따라, 하느님의 다양한 은총의 훌륭한 관리자로서 서로를 위하여 봉사하십시오. 말하는 이는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봉사하는 이는 하느님께서 주신 힘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느님께서 무슨 일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영원무궁토록 영광과 권능을 누리십니다. 아멘." (1베드 4,10-11)

기도 학교

기도란 무엇인가?

차동욱 시몬 신부_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영성지도

지지난 호에서 『가톨릭교회 교리서』에 나오는 '기도의 정의'를 **'하느님을 향하여 마음을 들어 높이는 것이며, 하느님께 은혜를 청하는 것'**이라고 소개해 드렸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으로 창조된 인간은 다시 자신의 자유의지로 하느님을 향합니다. 그렇게 하느님께 마음을 들어 높이는 인간은 하느님이 간직하신 영원한 행복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근본적으로 청합니다.

신학자 칼 라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일하게 인간을 인간으로 만들어 주는 한 가지는 인간이 진실을 알든 모르든, 또 그가 그렇게 되고 싶어 하든 아니든, 자신의 삶의 완성을 위해 하느님을 향하는 존재로서 영원한 하느님의 길 위에 있다는 점이다." 칼 라너는 여기서 인간이 숙명적으로 하느님을 향하여 있는 존재이며, 그리고 그것만큼 인간의 가치를 드높이는 것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러한 사실들을 스스로 무시하거나 모를 때라도 말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확실히 믿으며 하느님을 향하는 가장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이 바로 기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상대하는 분은 영원하고 무한한 분이며, 이 세상 안에 계시면서도 이 세상을 넘어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하느님과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 세상의 물리적 제약을 초월하여 하느님과 대화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결국 무한하신 하느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리고 이 대화는 당연히 토론이라거나 정보전달을 통한 지식의 축적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느님과의 대화의 목적은 **사랑의 관계맺음, 즉 친교**입니다. 한마디로 기도는 하느님과 대화하면서 친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으로부터 시작되어 말이나 생각, 행동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루는 대화로서, 하느님과의 인격적인 친교의 행위를 뜻합니다.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친하다, 친해진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같이 있으면 편안하고 즐거운 상태를 말하는 것이겠지요. 서로의 생각을 잘 받아들이며, 같은 일이나 같은 행동하기를 좋아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친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역시 대화입니다. 또한 친해질수록 그 사람의 성품이 나에게 감명을 주고, 나를 편안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해줌을 느낍니다.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친해져도 우리는 행복을 느끼는데, 하물며 인간을 창조하시고 행복의 기준이요 원천이 되시는 하느님과 친해지면 얼마나 더 행복하겠습니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고 얻으려고 애씁니다. 인생의 의미는 얼마나 행복하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

신 있게 행복하다는 사람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참된 행복의 원천이신 하느님에게서 행복을 찾지 않고, 엉뚱한 곳에서 행복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흔한 예를 들어, 우리는 재물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상 그만큼 가졌더니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 좀 모자라나보다 생각하여 더 가지려고 생각하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더 셀 수 없을 만큼 가졌는데도 역시 완벽하게 행복하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가진 마음은 다만 지난번보다 더 많이 가졌다는 자기 위로와 안심뿐입니다. 그런데도 그 잘못된 행복의 길을 계속 가다가 욕심만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재물이 아니라 권력과 명예에서 행복을 찾으려 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 욕심을 아무리 채워도 만족하거나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냥 더 가져야 되나보다, 더해야 되나보다 그래서 집착과 중독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끝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길에서 행복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가장 행복하신 하느님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인간이 하느님과 친해지면 그 결과는 당연히 진정한 행복입니다. 그분이야말로 행복의 원천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주시는 행복으로 인간이 만족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인간보다 하느님이 행복하신 분이실테니까요. 그래서 하느님은 인간이 하느님 당신처럼 되시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당신과 하나 되어 당신이 누리시는 행복을 똑같이 누리도록 초대하십니다. 기도는 이 과정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과 친해지고 나아가 진정으로 하느님과 하나가 됩니다. 이제 어디에서도 채울 수 없었던 완전한 행복을 하느님과 하나 되어 누리는 것입니다. 기도의 결과는 결국 하느님과 함께 행복하게 되는 일이며, 하느님처럼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입니다. 하느님의 선함이 내 삶의 기준이요 지향이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겠지요. 기도로서 친해진 하느님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니까요. 정리하면, **기도는 하느님과 대화로서 친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 기도의 결과는 하느님과 하나 되어 누리는 영원한 행복과 생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러한 기도의 정의나 목적이 흔들리는 순간들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느님과의 대화인 기도는 그렇게 하느님과 친해지는 것이지 거래가 아니라는 점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기도는 장사의 과정이 아닙니다. 상점에서 돈을 주면 물건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얻고 싶은 것을 얻겠지요. 그렇다고 상점 주인과 무조건 친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목적은 내가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고 그것을 얻는데 있지 주인과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이와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느님께 무엇을 청하는 기도로 많이 시작하지만, 그 청원의 끝에서도 그것을 이루어주시는 하느님과의 친교를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청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당연히 자주 청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느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다면 부모님은 오히려 자신의 존재감이나 부모로서의 역할에 대해 회의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모든 청을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를 떠나서 자식이 부모에게 매달릴 때, 부모는 자신이 이 자녀들의 부모임을 느끼고 자식은 그들을 부모로서 생각한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느님께 무엇인가를 청한다는 것은 당연히 당신을 나의 아버지요, 하느님으로 믿는다는 표시이기도 하기에 자주 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도의 목적이 하느님께 청하고 얻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과의 관계는 내가 얻을 것만을 얻고 끝나는 거래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내게, 나의 요청을 들어주시면서 가장 바라시는 것은 역시 나와 친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내가 얻을 것만 얻고 하느님과 다른 길을 가려고 합니다. 때로는 내가 찾는 것을 안 준다고 떼를 쓰다가 원망하여 다시 하느님을 찾지 않기도 합니다. 이런 나의 모습은 하느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기 보다는 거래상대로 둔갑시킵니다. 하느님은 나한테 무엇을 팔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러 오시는 분입니다. 하느님은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러 오시면서도 그 선물이 목적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목적인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청하면서도 내가 청하는 상대가 누구신지 바로 아버지 하느님을 뚜렷이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분 하느님과 그 모든 대화 속에서 더 친밀해지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이러한 기도의 목적이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편, 루카복음 11장 11-1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청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달걀을 청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 이 말씀은 우리의 기도 내용에 대해서 성찰을 하게 합니다. 우리가 청하는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성급하게 원망하기 전에 혹시 우리가 생선이 아니라 뱀을 청하는 것은 아닌지, 달걀이 아닌 전갈을 청하는 것은 아닌지 살필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가 청하는 것이 정말 하느님께서도 원하시는 것일지,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일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청하는 것이 하느님과 나를 멀게 만들 수 있는 것이라면 하느님은 결코 그것을 들어주실 리 만무하지요. 게다가 하느님은 우리가 당장 하루, 한 달을 앞두고 청하는 기도에 대하여 앞으로의 1년, 십년, 그리고 영원의 미래까지 섭리하시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고 도움이 되시는 것을 이루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하느님의 마음을 신뢰하고 기다리며 정성껏 기도하는 것이 참된 기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행여나 하느님 외에 다른 무엇을 수없이 바라는 동안에도 하느님은 오직 우리 자신을, 우리의 마음만을 갈망하십니다. 기도는 하느님과 친밀한 대화요, 기도의 목적은 하느님과의 친교라는 것을 알았으니 이제 하느님을 가지려는 모든 기도에 관심을 가져봅시다. 그러면 하느님과 함께 세상 삶의 바른 의미와 행복, 그 모든 것을 가진 이가 됩니다. 다음 시간부터 하느님을 만나는 이러한 기도의 많은 방법들, 곧 미사에서 시작하여 성체조배, 묵상기도, 관상기도 등을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신앙인들이 알아야 할 생명윤리 15

줄기세포 이야기 2

박은호 그레고리오 신부_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

배아 줄기세포의 윤리적 문제점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줄기세포를 얻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환자 치료와 마찬가지로 줄기세포를 얻는 절차에 있어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줄기세포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심각한 해악을 끼치지 않는 방법"(인간의 존엄 32항)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일반적으로 어른 유기체의 조직, 분만 시의 제대혈 그리고 자연사한 태아의 조직에서 줄기세포를 채취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배아 줄기세포의 경우는 살아 있는 인간 배아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해 내면서 배아를 파괴하는 심각한 윤리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치료법이 불치병 환자나 장애인들에게 아무리 큰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해도, 그들과 똑같이 소중한 다른 인간 생명을 파괴하여 만들어낸 것이라면 그러한 방법은 결코 인류에 대한 봉사라고 할 수도 없고, 참으로 비인간적인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한 인간을 수단, 혹은 도구로 취급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배아 줄기세포는 추출한 줄기세포를 환자의 몸에 이식했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면역 거부 반응을 극복하기 위해서 등장한 방법으로 황우석 박사의 연구였습니다. 그런데, 배아 복제기술은 1997년 복제양 '돌리(Dolly)'가 탄생하면서 등장하게 됩니다. 돌리는 어미의 체세포 핵을 그대로 이식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미와 똑같은 유전자를 지니고 있습니다. 복제된 배아는 두 개의 생식 세포가 결합되어 탄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편으로 보면 비정상적인 탄생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복제된 인간 배아를 동등한 인간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복제된 배아는 정상적으로 정자와 난자가 결합한 배아와 똑같은 유전자를 지니고 있습니다. 복제양 돌리는 자신의 어미양과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한 마리의 양인 것입니다. 이 기술이 인간에게 적용된다면, 앞에서 말했듯이 똑같은 유전자를 지닌 두 명의 인간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복제된 인간 배아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하는 것도 인간 생명을 파괴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생식 목적의 인간 복제의 문제점

사실, 복제기술은 애초에 원본과 똑같은 것을 만들어내려는 의도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복제기술은 그 목적에 따라 생식 복제와 치료 복제로 나뉘어 집니다. 생식 복제는 복제된 개체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며, 치료 복제는 앞에서 설명한 줄기세포 추출 등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생식 복제를 동물에게 적용하는 경우, 특정한 실험에 굉장히 적합한 유전자를 지닌 동물을 복제하여 효율적으로 같은 실험을 반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방법을 인간에게 적용한다면 복제 인간이 탄생합니다.

생식 목적의 복제와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희귀, 난치병 치료를 위한 연구 목적으로 배아 복제를 허용하고 있지만, 복제 배아를 자궁에 이식하여 탄생시키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제 인간의 탄생은 윤리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일단, 체외 수정 기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생식을 목적으로 한 복제는 한 인간의 출산 과정을 부부 사랑과 무관하게, 성과 무관하게 만들어서 비인간적인 상황에서 한 인간이 태어나게 만듭니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작이며 남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식 목적의 인간 복제는 태어날 인간의 유전적 특성을 다른 사람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유전적 특성을 결정할 권리를 갖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동등한 존엄성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생식 목적의 인간 복제는 복제된 사람을 일종의 '생물학적 노예'로 만들어서 인간의 존엄성과 모든 이의 평등성을 심각하게 침해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러한 생식 복제가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하는 인격의 고유함, 유일함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인격체로 빚어진 인간은 존재의 순간부터 하느님과의 특별하고 유일무이한 관계를 맺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유일하고 반복 불가능한 존재가 될 권리를 부여하며 이러한 유일성, 반복 불가능성은 우리의 생물학적, 유전적 특성에서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번에 인용했던 요한 바오로 2세의 말씀을 다시 한 번 기억하면서 줄기세포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 각 인간은 그가 타고난 것, 그가 행하는 것, 그의 정성과 의지, 그의 양심과 마음에서 볼 때 일회적인 존재이다. 인간은 하나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자기만의 생명의 역사가 있고, 가장 중요한 자기만의 영혼의 역사가 있다. (인간의 구원자 14항)

Cornerstone

Northern Cardinal / Red Bird

Cardinalis 홍관조
수컷의 깃털이 선홍색인 북아메리카의 로키산맥 동부에 분포하는 명금류(鳴禽類)로 참새목, 되새과에 속한다. 울음소리가 아름답고 진홍색의 아름다운 색상을 지니고 있는 관상조이다.

현존하는 조류의 약 60%가 이 참새목(Passeriformes)에 포함되는데, 참새·제비·종다리·까치·까마귀·팔색조·박새·멧새·개똥지빠귀·굴뚝새·잣새·방울새·금새·할미새·나이팅게일·찌르레기·카나리아 등을 포함하여 5,400여 종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세계에 널리 분포하며, 번식력이 가장 뛰어난 무리이다. 발성기관인 명관(울음관)이 발달되어 있으며, 번식기가 되면 독특하게 지저귀면서 세력권을 지키는 것이 많다.

추기경(라틴어:cardinalis, 영어:cardinal)은 가톨릭 교회에서 교황 다음가는 최고의 행정직이고, 교황의 선거인이다. 라틴어의 카르도(Cardo), 즉 '문지도리'라는 말에서 유래한다. 이는 문을 열고 닫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돌쩌귀와 같이, 교회의 막중한 직책을 맡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추기경을 카르디날(Cardinal)이라고 한다. 가톨릭 교회의 성직자들은 지위에 따라 색깔이 다른 수단을 입는데, 추기경은 옛날에 왕자를 의미하는 붉은 제복을 착용하기에 한국교회에서는 홍의 주교(紅衣主敎)라는 별칭으로 일컬었다. 추기경의 붉은 수단은 순교자의 피를 의미한다. 교황이 선출하는 추기경은 추기경 회의 때 쓰는 진홍색 모자를 받는다.

홍관조의 깃털 색이 추기경이 입는 붉은 수단과 비슷해서 카디널(Cardinal)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또한 홍관조는 작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새이고, 빛나는 빨간색은 남에게 베푸는 사랑과 우정을 상징한다.

로비오 엔터테인먼트사의 비디오게임 「앵그리버드」의 마스코트이고 리더인 빨간새 '레드(Red)'의 모티브가 바로 이 새다. 미국에 많이 분포하는 새라서 미국에서 스포츠팀 마스코트로도 많이 쓰인다. MLB의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 NFL의 애리조나 카디널스가 대표적이다.

코로나19 시대의 슬기로운 가정생활

가톨릭 직장인_ 모임교재팀

1. 주님을 초대한다.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2. 삶을 바라본다.

맞벌이 부부인 바오로와 수산나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바오로가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맞닥뜨리게 되었다. 처리해야 할 업무는 고사하고,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들의 뒷바라지, 자신과 아이들의 하루 세끼 식사 준비 등으로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고 있다.

바오로는 평소 청소나 설거지, 시장 보기 등 집안일을 많이 분담하는 편이라고 생각했었고, 아내가 주로 식사 준비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다. 아이의 학습 지도도 전적으로 아내의 몫이라 여겼다.

매일 출근하는 수산나가 부러운 반면, 그동안 직장생활을 하며 1인 다역을 해온 수산나의 수고에 새삼 고마움을 느꼈다.

Question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변화된 가정(부부)생활 등에 대해서 나누어봅시다.

3. 하느님께 귀를 기울인다.

1) 성경 본문을 읽고 함께 나눈다.

에페소서 5장 21절부터 33절까지 읽어주십시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아내는 주님께 순종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고 그 몸의 구원자이신 것과 같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서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말씀과 더불어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티나 주름 같은 것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당신 앞에 서게 하시며, 거룩하고 흠 없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도 이렇게 아내를 제 몸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 몸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하시는 것처럼 오히려 자기 몸을 가꾸고 보살핍니다. 우리는 그분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됩니다." 이는 큰 신비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도 저마다 자기 아내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을 존경해야 합니다.

2) 성서본문 중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짧은 구절을 외친 후 묵상한다.

3)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나눈다.

내가 갖고 있는 배우자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기대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나누어봅시다.

4. 교회의 문헌을 읽는다.

"대화는 혼인 생활과 가정생활 중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표현하며 키워 나가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특별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는 시간이 오래 걸리며 노력이 필요한 학습 과정의 열매입니다. … 우리는 사랑을 표현하고 참된 대화를 권장하는 태도를 키워야 합니다." (136항)

"시간, 소중한 시간을 내주십시오. 이는 상대방이 말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인내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적절한 순간이 올 때까지 말을 하지 않고 기다릴 줄 아는 참을성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의견을 제시하거나 충고하기보다는 상대방이 말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이는 생각과 감정에 방해받지 않고 상대방의 말을 들을 수 있게 해 주는 내적 침묵의 함양을 의미합니다." … (137항)

『프란치스코 교황 사랑의 기쁨 해설 중』

5. 실천계획을 세운다.

6. 기도나 성가로 모임을 마친다.

고전 음악을 듣다

베토벤 이해하기(2) - 칸트의 숭고미의 개념으로 본 베토벤의 음악

조병선 바오로_ 청주대 법학과 교수

이미 이전부터 베토벤의 음악에 '숭고'라는 말을 붙인 자로 바그너와 호프만이 있었다. 리하르트 바그너는 베토벤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며 쓴 글에서, 1870년 베토벤의 음악은 이전의 음악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단정하였다. 베토벤에 이르러 음악은 스스로의 아름다움을 넘어서 '숭고'의 차원으로 한 단계 도약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 50년 전, 베토벤이 살아있었던 시기였던 1820년, 당대의 음악비평가이자 작가였던 E. T. A. 호프만(Hoffman)도 이미 베토벤의 음악을 '숭고'하다고 평가하였다. 음악사상 처음으로 음악에 붙여진 '숭고'라는 단어는 철학적 용어로서 칸트로부터 기원한다.

그러나 칸트의 숭고미의 개념도 사실 이미 고대로부터 시작하여 본격적으로는 17세기 영국에서 수용되기 시작한 미학개념이었다. 버크(E. Burk)는 자신의 저술『숭고한 것과 아름다운 것에 대한 우리의 관념의 기원에 관한 철학적 탐구(1757)』에서 숭고미와 관련하여 "… 어떤 종류이든 고통(pain)과 위험(danger)의 관념을 촉발하기에 적합한 것, 말하자면 1) 어떤 종류이든 무시무시한(terrible) 것이거나 2) 무시무시한 대상과 관련되어 있는 것, 혹은 3) 공포와 유사한 방식으로 작용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숭고의 원천이다"라고 하였다. 이후 칸트는 버크에서 더 나아가 숭고를 정의하였다. 그는『판단력비판(1790)』에서 "…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쾌(快)나 불쾌(不快)는 대상의 성질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주관

Immanuel Kant (1724-1804)
by Johann Gottlieb Becker (1720-1782)
Oil on canvas, 1768

임마누엘 칸트(독일어: Immanuel Kant)는 근대 계몽주의를 정점에 올려놓았고 독일 관념철학의 기반을 확립한 프로이센의 철학자이다.

적 감정에서 나오는 능력이다."라고 '숭고미(Erhabenheit)'를 정의하여 단순한 '미(Schönheit)'와 구별하였다. 칸트는 "… 인간은 자연에 비할 때 미약하기 이를 데 없는 존재에 불과하다. 인간의 얄팍한 오성 능력만으로는 광대하고 변화무쌍하고 신비로운 대자연과 우주를 다 인식해낼 수 없다. 하지만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인 까닭에 자연의 그 무한성 그 자체를 사유대상으로 대상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연보다 우월하다고 할 수 있다. 숭고는 이러한 인간정신의 위대성이 드러날 때 생기는 쾌감이다."라고 하였고, 이 때 숭고의 대상은 "… 처음에 상상력이 포착하였던 감각자료의 일부를 상실하지 않고는 전체를 포착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크기(수학적 숭고)나 엄청난 힘(역학적 숭고)이다." 칸트는 이시스 신전(Temple of Isis)에 새겨진 문구 "지금 존재하는 나는 이전에도 존재하였으며 이후에도 존재할 것이며, 어느 누구도 내 장막(veil)을 들추지 못할 것이다"를 인용하면서 인간에게 이시스의 가려진 장막과 같은 불가능한 경험을 제시하는 것은 숭고하다고 하였다.

자, 칸트의 숭고미의 개념을 베토벤에 적용하면서 이제 쉬운 말로 풀

Beethoven: Sonaten "Pathétique" & "Mondschein"
Emil Gilels
Release Date: March, 1983
Label: Deutsche Grammophon(DG)
Duration: 52:00
Catalog #: 400 036-2GH

Beethoven: Favourite Piano Sonatas
Alfred Brendel
Release Date: January 18, 1994
Label: Decca
Duration: 02:32:09
Catalog #: 4387302

이해 보자. 베토벤의 음악은 어느 음악가의 음악보다도 묵중하고 심오한 느낌을 준다. 하이든이나 모차르트와 다르다. 그 깊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무한성을 느끼게 해준다. 이는 멜로디나 화성의 아름다움 그 자체를 넘는 쾌락이다. 진지하고 무거운 쾌감에 가까운 것이다. 이때 우리는 '숭고'하다는 말을 할 수 있다. 베토벤의 아름다운 음악을 대표하는 **피아노 소나타 C#단조 월광(Op.27-2) 1악장**만 해도 과거의 단순한 세레나데를 숭고한 아름다움으로 바꿔놓았다. 베토벤 당시의 피아노는 지금의 현대 피아노보다 잔향이 적었으므로, 세도막 형식의 첫 부분 셋잇단음표는 연인의 방 창 밑에서 연주하는 전형적인 기타 반주로 생각하고 들으면 좋다. 뒤이어 이어지는 오른손의 멜로디로 이제 본 노래가 등장하고, 이내 쓰라린 탄식으로 이어지다가 중간 부분에서 감정이 격해져 노래를 채 끝맺지 못할 때 목관 악기들이 옥타브 간격으로 이어간다. 오히려 주 멜로디보다도 우리 귀에 익숙했던 셋잇단음표는 이제 전악장에 걸쳐 다채로운 화성으로 우리의 애틋한 감정을 숭고하게 무거움으로 바꿔준다. 이야말로 베토벤의 매력이다. 베토벤은 우리가 감각으로는 직접 경험하기 어려운 관념(신, 정신, 우주)을 음악으로 포착하려고 하였기에 그의 음악은 긴 과정을 거치면서 무한성을 향한다. 초기의 **교향곡 1번 C장조 1악장**도 느린 서주를 C장조가 아닌 다른 조로 시작하여 무언가 찾아 헤메는 과정을 거쳐 마침내 C장조의 딸림화음으로 안착한다. 이러한 화성진행은 당시로서는 새로운 시도로 베토벤의 혁신이였다. 더 나아가 **피아노 소나타 17번 D단조 템페스트(Op.31-2) 1악장**의 제2주제를 보자. 원래 단조의 딸림화음의 제2주제가 재현부에 다시 나올 때 으뜸화음보다 4도 높게 등장하여 긴장도를 고조시킨다. 그러나 베토벤 당시 5옥타브의 피아노라는 악기 자체가 갖는 한계로 피아노 건반의 최고음에서 멈출 수밖에 없었다. 그러한 일례는 **장엄미사 D장조(Op. 123)와 교향곡 9번 D단조(Op.125)**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당시 성악가에게 거의 불가능한 높이의 음표가 등장한다. 당연한 귀결로 불협화음이 나게 되는데, 당시로서는 아주 이색적인 불협화음이었다. 그러나 그 불협화음은 오히려 아름답게 들리기도 하기 때문에, 음악이론가들은 이를 '전도된 페달 포인트'라고 하여 베토벤의 이러한 색다른 시도를 마치 그가 의도한 것처럼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다. 그러나 베토벤은 불협화음 자체를 의도한 것은 아니었다.

그렇다면 베토벤은 왜 이렇게 무모하게 화성의 전개 그 자체로는 미완성인 것을 알면서도 그러한 시도를 하는가? 그 불협화음은 베토벤의 이상적 지향점과 당대의 악기의 한계가 빚어낸 결과였다. 다시 예를 들면, **교향곡 제5번 운명 C단조(Op.67) 제1악장**의 F#단조 화성(215-220마디)에서도 현악기에게는 올바른 기보를 하였지만, 관악기에게는 그 악기의 한계로 인해 F#, A, Db으로 마치 오기된 것처럼 이

Beethoven: Symphony no.3 "Eroica" & 4
Berlner Phiharmoniker / Herbert von Karajan
Release Date: 1963
Label: Deutsche Grammophon(DG)
Duration: 01:21:16
Catalog #: 00289 477 7157

어져 불협화음을 낸다. 당시 악기의 물리적인 한계로 이상에 미달하는 소리를 내지만, 음악은 그 지향하는 이상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베토벤의 **교향곡 3번 Eb장조 영웅(Op.55)**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제1악장 코다에서 갑자기 고양되어야 할 트럼펫(영웅을 상징하는 악기)이 사라진다. 이는 당시 '내추럴 트럼펫'(베토벤 당대에는 아직 밸브가 있는 트럼펫이 개발되기 전이었다)이 높은 음을 내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후대의 지휘자들은 현대의 트럼펫을 사용하여 미처 내지 못한 그 고음을 내도록 수정하여 연주하기도 하고(푸르트벵글러나 카라얀), 원래의 악보에 충실하여 다소 어색하더라도 그대로 트럼펫의 고음 없이 진행시키기도 한다. 이 부분을 비교 감상하면 모두들 흥미로워 한다. 그 외에도 베토벤의 파격은 수없이 발견된다. 영웅 교향곡 제1악장 재현부 직전에 호른이 등장하여 호른주자가 실수로 일찍 끼어든 듯한 느낌을 주고, 잘못된 대위법으로 오해하기 쉽도록 한 파격, 진지하기 이를데 없는 교향곡 제9번의 제4악장에 난데없이 싸구려 악단 풍의 '터키 행진곡'이 등장하는 등 베토벤의 음악적 파격들은 칸트가 언급한 '이시스의 베일'과 같다. 영웅 교향곡에서 3대의 호른 중 1대의 호른이 일찍 등장하는 것은 마치 바다 위에 거대한 태양이 떠오르기 직전 살짝 그 붉은 해의 불덩이를 비추어 주려는 의도였으며, 합창 교향곡의 터키 행진곡은 마치 싸구려 약장수의 음악과 같은 대중도 포용하고 당시 전쟁의 대상이었던 터키 음악까지도 포용하려는 베토벤의 원대한 뜻이 숨겨져 있다. 베토벤은 악기의 한계 등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연주라는 것을 알면서도, 소나타 형식의 '주제'를 통하여 음악적 이상을 추구하였고, 결과적으로 숭고한 음악이 만들어졌다. 이제 '주제'는 노래의 멜로디에 그치지 않고 '짧은 동기(motiv)'로서 마치 모자이크의 조각처럼 전체를 조립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었다. 이렇게 음악은 깊은 정신적 이상까지도 내포한 장르로 격상되었고, 숭고함을 갖추게 되었다. 숭고해진 만큼 그의 음악은 당시로서는 이해가 불가능할 정도로 파격적인 음악이었고, 이러한 혁신적 음악은 당시 귀족들에게는 오히려 커다란 매력으로 다가왔다. 절대왕정이 해체되면서 산업사회로의 과도기에서 귀족계층은 그들에게는 교양없어 보이는 신흥 부르조아가 이해하기 어려운 새로운 음악이 필요하였고, 그것이 바로 베토벤이었다. 귀족들은 앞다투어 베토벤을 가까이 하려 하였고, 황제의 동생인 루돌프 대공까지도 기꺼이 베토벤의 제자가 되고 친구가 되었다.

지난 호에서 이미 서술하였듯이, 베토벤은 실패한 아버지의 강박적인 하드트레이닝으로 후일 빈에서 즉흥연주 결투의 챔피온이 될 정도로 피아노의 비루투오조 테크니션이 되었지만, 학교를 못 다닌 결핍을 독서클럽과 본 대학 청강을 통해 채워 유럽의 지성인 수준에 올랐고, 음악을 단순히 교회의 전례음악이나 귀족의 여흥음악의 차원에서 철학적 숭고미의 차원으로 바꿔놓았다. 1827년 사망하기까지 베토벤의 음악은 늘 혁신에 혁신을 거듭하였다. 친구였던 극작가 그릴파르처(Grillparzer)가 추도사를 한 장례식에는 당시 빈 인구의 1/10에 해당하는 2만여 명이 운집한 존경의 대상이 되었다. 귀족의 시종에 불과하였던 하이든, 모차르트와 생애가 다수 겹치는 것을 생각하면, 베토벤의 숭고미로의 변혁은 시대의 귀결이라기 보다는, 시대를 앞서 나간 위대한 개인의 강한 돌파구였다.

신앙의 땅, 이스라엘을 거닐다

나자렛 - 갈릴래아 예수님의 시작.

심연선 소화데레사_ 이스라엘 전문 여행 가이드

에인 케렘에서 성모님을 뵙고, 이제 발걸음을 북쪽으로 향해 나자렛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은 대중교통 인프라가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차를 빌려서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특별히 나자렛을 비롯한 갈릴래아 호수가 있는 지역, 그리고 골란고원까지 가보실 분들은 더욱이 차를 빌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스라엘 북쪽은 길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차도 아주 많지 않기 때문에 초보 운전자도 어렵지 않게 원하는 곳을 네비게이션을 켜고 운전을 해서 가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들은 이스라엘에서 렌트를 해서 갈 수 있는 곳들입니다. 운전을 전혀 못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겠다 하시면 물론 가능합니다만, 굉장히 한정적인 곳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자렛을 기점으로 그 주변 지역들은, 쉽게 말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도시가 아니라 농사짓는 밭이 더 많이 보이는 시골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교통 인프라가 발달한 우리나라도 시골 할머니 댁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려면 배차시간을 잘 알아야 하며, 많이 걸을 각오를 해야 하지요. 그것과 비슷한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지역이 바로 갈릴래아 지방입니다.

순례 오시는 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갈릴래아' 라고 들으면 호수를 제일 먼저 떠올립니다. '갈릴래아 호수 주변 지역 아닌가?' 라고 쉽게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너무 작은 범위입니다. 갈릴래아 지방은 남북으로는 나자렛에서 시작해서 이스라엘 가장 북쪽 끝 레바논 지역까지, 동서로는 골란고원 아래로부터 지중해까지의 땅을 일컫습니다. 갈릴래아는 '파도', '굴러가다', 'wave'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땅의 모양이 남쪽에서 북쪽까지 파도치는 것처럼 골짜기와 언덕 혹은 산으로 계속 이루어져 있어서 지역 이름이 갈릴래아가 되었다고 합니다. '갈릴래아 사람들이다' 라고 말했을 때에는 나자렛에 사는 사람들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나자렛까지 150km 조금 안되는 거리입니다. 자동차로 약 2시간 정도 소요되고, 예루살렘 센트럴 버스 스테이션에서 나자렛까지 오는 직행버스가 있습니다. 이 또한 두시간 남짓 소요됩니다. 서울에서 대전 정도의 거리네요. 나자렛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도시 중에 하이파 다음으로 큰 도시입니다. 하이파는 유다교를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도시라고 한다면, 나자렛은 예수님을 따르는 아랍계 그리스도교인들의 구도시입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아랍계 그리스도교인들 도시 중에 가장 크고 신자들이 많이 사는 지역입니다.

나자렛은 산 중턱에 성당을 중심으로 넓게 펼쳐져있는 도시의 모양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산 중턱에 자리잡은 아주 작은 마을 중에 하나였다고 하네요. 오히려 고개 두 번 넘

나자렛 전경

어가서 만나는 카나 - 예수님께서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기적을 보여주신 동네 – 가 훨씬 더 컸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지리적인 특성에서 오는 것인데, 이스라엘에는 고대로부터 길이 발달되고 크게 번성한 도시들은 지금 말할 것 같으면 역세권 같이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길목에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카나는 갈릴래아 호수 쪽으로 내려가는 길목에 위치한 마을이었지만, 나자렛은 산 중간쯤에 폭 안겨있는 작은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마을에서 마리아, 요셉, 예수님, 성가정이 사셨던 것이죠.

그냥 생각만해도 마음이 엄청 훈훈해집니다. 특히 어린이 예수님이라니요! 과연 어떠셨을까요? 어떤 얼굴이었을까요? 지난번에 성모 마리아의 외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요셉성인과 예수님의 외모를 생각해 봅니다.

몇 년 전, BBC 다큐에서 법의학자 교수가 예수님 얼굴 연구를 한 끝에 내놓은 짧은 곱슬머리에 구릿빛 피부를 가지고 있는 영락없는 중동인의 얼굴 그림이 반향을 불러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예수님 또한 흰 피부에 금발머리는 아니셨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랍계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사는 현재 나자렛에서 잘 볼 수 있는 까만 곱슬머리의 귀여운 초등학생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상상해보고, 동양인들을 호기심에 가득찬 눈으로 바라보며 까르르 웃는 중학생 여자아이들을 보면서 성모님을 상상해보고, 나이 좀 지긋하게 드신 인자한 얼굴의 아저씨를 보며 요셉성인을 상상해봅니다.

그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나자렛 도시 중심으로 갑니다. 어느 나라나 오래된 도시를 가면 길이 좁고 일방통행이 많은데, 이곳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탄생 예고 성당**을 더 잘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성당은 마리아의 집 위에 세워진 성당인데,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성당입니다. 비잔틴 시대부터 무너지고 지어지고를 반복해서 지금 지어진 성당은 여섯 번째 성당이라고 합니다.

성당을 향해 오르는 길바닥은 베들레헴처럼 반질반질한 돌바닥입니다. 얼마나 많은 순례자들이 밟고 지나갔을까요? 예수님이 사셨던 동네를 한번 걸어보고 싶었던 그런 마음에 찾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성당 입구를 들어서면 아름다운 지붕장식이 가브리엘 천사의 날개가 펼쳐져 있는 듯한 모습으로 우리를 맞이합니다. 성당 안쪽 벽면에는 각국에서 보내온 주님의 탄생 예고 모자이크, 또는 성모자 모자이크가 장식이 되어있는데, 오른쪽 회랑에 푸른색 저고리를 입으신 성모님과 색동옷을 입으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반가운 마음에 한걸음으로 달려가

나자렛 주님의 탄생 예고 대성당

나자렛의 성모님

성모님 집터 제대

성모님 집터 제대 이콘

성 요셉 성당

서 인사를 하고 다시 성당 안에 들어서면 성당 왼편 반지하에 **성모님의 집터**가 보입니다. (집은 십자군 전쟁 때 무슬림들이 파괴할까봐 걱정이 되어서 이탈리아에 모셔갔답니다.) 오른쪽에는 푸른색 옷을 입고 당차게 걸어나가시는 나자렛의 성모님이 계십니다. 계단을 따라 내려가서 성모님 집 앞에서 삼종 기도를 바칩니다. 안쪽 제대에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이곳에서"'라는 라틴어 글귀가 마음에 더 와닿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면 크고 아름다운 제대 뒷편의 모자이크가 눈에 들어옵니다. 삼위일체와 성모님, 베드로 사도, 많은 순교자들과 성인 성녀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고개를 들어 보면 성당 지붕이 하늘에 뿌리를 두고 성모님 집으로 향해 내려온 백합꽃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은은한 햇빛이 창 사이사이로 내려앉아 2층을 거쳐 1층 성모님 집터까지 내려옵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만난 소녀 마리아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 작은 입술로 대답하는 말을 온 우주가 집중하고 있었을 텐데…. 의자에 앉아서 눈을 감고 잠시 묵상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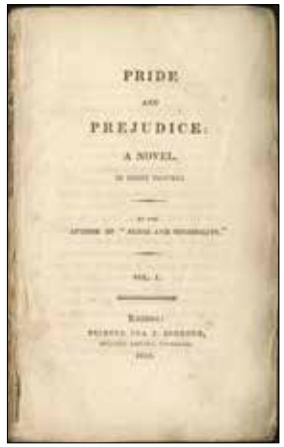
2층 성당에서 나오면 100미터도 채 떨어지지 않은 건너편에 작은 성당이 눈에 들어오는데, 요셉 성인 집터 위에 세워진 **성 요셉 성당**입니다. 역시 반지하-1층-2층 순으로 되어 있는데 겸손하신 요셉 성인처럼 비교적 작은 규모입니다. 그렇지만 왠지 모르게 평안하고 아늑한 느낌마저 듭니다. 성가정이 살았던 곳이기 때문인가 봅니다.

나자렛은 작은 규모의 호스텔과 호텔도 많이 있고, 수도원에서 운영하는 숙소도 많습니다. 대부분의 숙소가 도보로 주님의 탄생 예고 성당으로 갈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새벽마다 프란치스코 신부님들이 성모님의 집 앞 제대에서 미사를 봉헌하시는데 언어가 다르겠지만 참례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좋습니다. 고요한 새벽, 바로 그 곳에서 날의 시작과 함께 맞이하는 예수님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몸과 마음에 모시고 성당을 나서면 따뜻한 아침햇살과 예루살렘에서 느낀 것과는 조금 다른 갈릴래아의 바람이 두 뺨을 간지럽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랜 세월 지내셨던 나자렛에서의 아침. 반갑게 인사하는 부지런한 동네 아저씨의 주름진 웃는 얼굴에서 도시 곳곳에 남아있는 그분의 따뜻한 사랑을 느낍니다.

신앙인의 눈으로 읽는 고전 문학

제인 오스틴『오만과 편견』(2)

최대환 신부_ 의정부 교구 / 대신학교



오만과 편견
초판의 제목페이지
영국, 영어
출판사: T. Egerton, Whitehall
발행일: 1813년 1월 28일
OCLC번호: 38659585

제인 오스틴의 재발견

지난 이십여 년간 영국의 작가 제인 오스틴 (Jane Austen, 1775-1817)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과 사랑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을 문화계의 흐름을 조금만 관찰해보면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녀가 영문학사에서 사랑받는 작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순위에 놓이는 것에 대해서 이견을 가질 평자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문학적 성취에 관해 다른 위대한 작가들에 비해서는 '사소한' 주제와 소재를 다룬다는 선입견은 사라졌고, 사람들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따뜻하면서도 예리한 관찰자이자 현실적이고 유연하면서도 도덕적 가치에 대한 섬세한 옹호자인 제인 오스틴의 진가를 점점 더 많이 발견하고 경탄하고 있습니다.

제인 오스틴의 많지 않은 작품들은 문학의 경전에 속하는 권위를 얻으면서도 현대의 독자에게 거의 진입장벽 없이 마치 오늘의 소설작품 같은 친근함과 경쾌함을 겸비하고 있는데, 이는 고전 작품들 중에서는 매우 예외적이라 하겠습니다. 제인 오스틴의 작품들은 시대적 차이를 훌쩍 뛰어넘어 현대의 여러 대중적 장르 소설이나 영상물들에 영감을 주기도 하고 위화감 없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문학적 작품성이나 인기, 영향, 윤리적 가치에 있어 최고의 작품은 두말할 나위 없이『오만과 편견 Pride and Prejudice』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당시 사회적 계급적 한계로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평생 결혼도 하지 않았으며, 여성 전업 작가로서 경제적으로 독립할 여건이 아직 되지 않은 시대적 조건 탓에 경제적, 사회적 안정을 가족의 도움을 받기도 해야 했으며, 마흔 중반이라는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난, 살아있을 때는 비교적 제한된 사교계에서나 글을 쓰는 재기가 충만한 여성 작가로 작은 인정을 받았던 제인 오스틴은 이제는 글쓰는 여성의 삶의 방식을 시대를 앞서 선취한 모범이자 전범으로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녀의 삶이나 인물 자체가 조금씩 극적이고 신화적인 후광을 얻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제인 오스틴이라는 인물 자체에 대한 대중과 미디어의 매혹은 그녀의 소설만이 아니라 그녀 삶의 일화들이나 그녀에게 영감받은 여성들의 이야기가 즐겨 영화와 드라마의 소재가 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비커밍 제인』이나『제인 오스틴 북클럽』같은 영화를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학애호가들 만이 아니라 영상 미디어를 통해 제인 오스틴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전의 젊은 여성들을 소재로 했던 작품들도 재조명되고 재평가와 재해석이 되고 있는 것 역시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작은 아씨들』이나 『빨간머리 앤』 같은 작품들이 대표적입니다.

제인 오스틴의 문학세계를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매우 일상적인 배경과 사소해 보이는 대화들을 통해서도 매우 깊이 있는 윤리적이고 철학적인 깨달음을 전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현대인들이 제인 오스틴의 작품에서 위로와 지혜를 동시에 얻게 되는 것은 너무나 과잉되고 자기 과시적인 문화가 잊고 있는 일상의 소중함을 그녀의 작품들이 다시 바라볼 수 있게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만과 편견』의 매력에 대해서

제인 오스틴의 대표작 『오만과 편견』은 물론 아주 일찍부터 세계 문학의 고전 중의 고전을 일컫는, 이른바 '경전 Canon' 에 속할 정도로 그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이 분야에 있어 큰 권위를 인정받는 영문학자 해럴드 블룸 역시, 그의 저서 『서양문학의 경전 Western Canon』에서 다양한 언어권을 포괄하는 그 긴 서양문학의 역사에서 단 스물 여섯의 작가만을 경전의 자리에 올려놓고 있는데, 제인 오스틴 역시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여성 작가로는 그녀 외에는 시인 에밀리 디킨스, 소설가 조지 엘리어트와 버지니아 울프만이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작품이 가지는 매력은 무엇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블룸이 꼽는 경전에 속하는 단테, 셰익스피어, 세르반테스, 괴테, 카프카 같은 작가들과 비교하자면, 제인 오스틴의 이 걸작은 매우 안온하고 일상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듯 보입니다. 물론 그 안에 적잖은 굴곡이 있습니다만, 위대한 문학에서 기대하게 되는 거대하고 인류의 기원으로 거슬러가고 인간성의 밑바닥을 뒤짚어 놓은 거인적인 주제들이 등장하지 않고, 평범한 사람들이 누구나 살면서 겪은 인생의 크고 작은 소동, 오래 남긴 하지만 견딜만한 상처와 슬픔, 대단치 않아 보이지만 삶을 살아가게 하는 기쁨과 즐거움 등이 이야기의 중심입니다. 역설적으로 제인 오스틴의 위대함은 평범한 사람들의 진실을 탁월하고 비범하게 보여주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시대적, 사회적, 환경적 제약 속에서 살아가고 일상에 뿌리내리고 살지만, 그럼에도 모호해지고자 하는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평범한 사람들 안에도 고귀한 품성과 가치를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보려는 도덕성이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과장과 불필요한 무게 없이, 가식 없고 담백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녀의 경쾌한 문체와 정직한 관찰력은 인생에 대한 깊은 통찰력과 함께 하고 있기에, 그저 가볍고 재미있는 것이 아니라 책을 읽고 나면 삶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인식하게 되었다는 뿌듯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식이 자기성찰의 겸허함과 만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오만과 편견』은 뛰어난 소설입니다. 제인 오스틴은 이 소설에서 여러 등장인물을 다면적이면서도 예리하게 조명합니다. 그들의 성격과 행동에서 볼 수 있는 덕성(德性)과 악덕(惡德), 장점과 약점 모두를 차분하면서도 생기 있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작품을 재기발랄한 잘 쓴 소설을 넘어 위대한 고전으로 만드는 것은 소설 속에 부족하고 약점을 지닌 인간존재에 대한 이해와 연민이 과장되지 않으면서도 깊게 잘 표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히 두 주인공 다아시와 엘리자베스는 소설을 통해 그들의 내면과 인격, 관계와 사랑의 표현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어서 인상적입니

다. 전형성과 입체성이 잘 조화되어 있는 인물묘사는『오만과 편견』이 여러번 영화화, 드라마화 되어도 식상하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일 것입니다. 지난 이십 여년 간 가장 격찬을 받은 각색인 1998년의 BBC의 미니 시리즈가 콜린 퍼스의 다아시 해석에 관심이 모였다면, 역시 많은 사랑을 받은, 2005년에 나온 조 라이트의 영화는 키에라 나이틀리의 엘리자베스 해석이 많은 호감을 얻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이 소설은 거듭해서 새로운 세대를 위한 영화와 드라마가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그건 그만큼 원작에서 길어낼 수 있는 등장인물의 깊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 호 부터는 본격적으로 여러 등장인물들과 미덕과 악습을 살펴보고, 두 주인공들이 어떻게 자기 자신들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개선하며 서로의 사랑의 관계를 성숙하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r. Darcy(Colin Firth)

《Pride and Prejudice》/ 5h 27min / Drama, Romance / TV Mini-Series(1995)

Elizabeth Bennet(Keira Knightley):

《Pride and Prejudice》/ 2h 9min / Drama, Romance / Movie(2005)

교우회 소식

관악구청 천주교 교우회

주님이 주신 소중한 직장이라는 삶의 터전에서 주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고 활동을 통하여 더욱 큰 믿음과 감사의 마음으로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구 성 : 관악구청 가톨릭 신자 85명
  (회장 : 이제동 프란치스코 / 총무 : 안혜란 사비나)
- 지도신부 : 최일광 라파엘, 행운동 성당 신부님
- 활 동 : 매월 직장미사, 년 2회 신앙대회 (행안부, 서울시)

티나씨의 티비보기

내 속엔 '부캐'가 너무도 많아

김은영 크리스티나_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언론홍보 담당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시인과 촌장, '가시나무', 1988년). 사춘기에 들어설 무렵의 겨울날 아침에 라디오에서 들은 노랫말이었다. 비유의 본뜻을 언뜻 이해할 수는 없었어도, 다른 존재와 인격적으로 깊이 만날 수 없는 처지에 대한 슬픔과 자책감은 어렴풋이 느껴졌다. '당신'이 주님을 뜻하는 신앙고백의 노래라는 사실은 나중에 들었다. 당신이 자신을 비우시어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필리 2,7) 바오로 사도의 고백도.

이 노래가 2002년 조성모의 리메이크 작품으로도 채택되어 크게 히트한 것을 보면, 종교적 배경은 차치하고라도 개인의 자의식에 대한 성찰이 한 시대의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얻었나 보다. 그런데 리메이크 시점에서도 20년 가까이 지난 지금 대중문화계와 자기계발 담론에서 유행하는 '부캐' 열풍을 보노라면,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라는 고백이 이제는 부끄러움이 아닌 자랑거리가 된 느낌이다.

'부캐'는 '본캐'와 불가분의 관계다. 부(副)캐릭터는 본(本)캐릭터를 전제로 운용된다. 유능한 배우가 여러 작품에 연달아 출연하며 변신을 거듭하는 것과 달리, '부캐'는 '본캐'와 공존하며 서로의 존재감을 북돋우는 멀티태스킹 도구이다. 한편, 부캐는 본캐가 환경의 제약이나 타인의 눈총 때문에 억눌렀던 욕구를 분출하는 도구이기도 하다. 이 기능을 단적으로 보여준 캐릭터가 드라마 속 부캐의 효시로 꼽히는 「아내의 유혹」의 '민소희'다. 무책임한 바람둥이 남편에게 버려진 과거를 접어두고, 단기간에 화려한 사교술과 다양한 특기를 습득해 전남편과 순정파 연하남의 구애를 한몸에 받는 여인. 핍박받는 현실적 본캐와 전지전능한 이상적 부캐를 같은 배우가 동시에 연기하며 재미와 연기 호평을 모두 잡는 전략은, 이후 작품들에서도 대중의 욕망을 반영한다는 명분과 함께 쌍둥이, 성형수술, 다이어트 전후, 변장 등의 설정을 빌려 애용되고 있다.

트로트 가수, 라디오 DJ, 오케스트라 연주자, 아이돌그룹 멤버 등 다양한 직업과 별명을 선보인 '놀면 뭐하니'의 부캐 열전은 고독한 존재로 호명되던 내가 타인과 교류하며 성장하는 과정을 따라간다. 수시로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주인공은 스승과 동료들을 만나 영감과 작업 노하우를 주고받으며 경험의 반경을 넓히고, 그와 프로젝트를 함께하는 동료들도 새로운 부캐를 부여받는다. 내 속의 내가 남을 찌르는 가시가 아니라 친구를 부르는 꽃이 된 것이다.

다재다능한 예능인들을 향하던 '부캐'라는 찬사는 취미를 제2의 직업으로 정착시킨 젊은이들에게도 바쳐진다. 일과 휴식의 조화가 중시되고 다양한 정보가 온라인으로 공급되면서 취미의 영역이 다양해졌고,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평생직장의 개념이 약해지면서 회사에 헌신하기보다는 취미에서 소득도 창출하고 본업에 임할 활력도 얻는 사람들이 매력적이고 유능한 인재로 칭찬받게 되었다.

그들이 갖는 제2의 직업이 부업이 아닌 부캐로 불리는 것은 괴로워도 참고 유지하는 생계수단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과 취향을 반영한 캐릭터이기 때문이다. 유행의 흐름을 예민하게 포착하는 방송이 이들을 놓칠 리 없으니, 이제는 생활정보 쇼와 다큐멘터리에서 부업, 아니 부캐를 가진 사람들을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다. 퇴근하면 유튜버가 되는 회사원, 웹 소설을 쓰는 의사, 만화가와 공동작업으로 웹툰을 제작하는 변호사….

1980년대 복음성가의 '나'는 하느님과 이웃을 밀어내는 아집의 결정체였다. 2020년대 대중문화의 '나'는 드러내는 것이 미덕인 능력의 지표이다. 그 변화는 종교의 영향력이 약해진 시대의 흐름 탓일 수도, 물질적 부요와 정보화가 불러온 개인주의의 영향일 수도 있다. 나의 탈렌트를 꽃피우는 것은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고, '부캐'들이 다채로운 경험과 교류를 안겨주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놀면 뭐하니'의 제작비 예산과 화면을 빼곡하게 채운 간접광고처럼 소비 예찬과 자기계발 담론과 불가분의 관계인 부캐 신드롬은, 물질적·시간적 여유가 없어 다른 내가 될 수 없는 이들에게는 스쳐 가는 눈요깃거리이거나 부러움을 넘어선 열패감의 원인일 수밖에 없다.

성미술 이야기

작은 선행이 큰 기적을 일으키고

정웅모 신부_ 서울대교구 성미술 담당

아직도 쌀쌀한 겨울이지만 이번 달 3일은 봄이 온다는 입춘이다. 옛 사람들은 1년을 24절기로 나누었는데 그것은 농경사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절기에 맞추어 부지런히 움직여야 한 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고 풍성한 수확의 기쁨도 맛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루의 계획은 아침에 세운다.'는 말처럼 한 해의 계획도 연초나 봄에 세우는 것이 좋다.

우리 조상들은 자주 하늘을 바라보고 자연의 순리에 따라서 자신들의 삶을 가꾸었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하늘이나 자연으로부터 점점 멀어진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 오늘의 날씨를 알기 위해 집 밖에서 하늘을 쳐다보는 대신에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보면서 정보를 찾는 데 익숙해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삶의 나침판으로 여기며 사는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며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 즉 경천애인(敬天愛人)의 삶을 묵묵히 가꾸는 사람이다.

오래전부터 가톨릭교회는 성화와 성상을 중요하게 여겨 신자들의 신심을 북돋우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교회 미술은 멀리 있는 듯한 하느님 나라를 가까이서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성미술은 눈으로 보는 신앙의 세계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교회의 역사는 유럽에 비해

최영심(1946-) I <만나와 빵의 기적> I 1992년
유리화 I 대치2동성당 I 서울

서 매우 짧은 편이지만 단기간에 많은 성당이 건립되면서 다양한 교회미술이 모습을 드러냈다.

교회 미술 가운데서 신비로운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유리화는 여러 성당에서 볼 수 있다. 대치2동성당에는 최영심 화가가 제작한 유리화가 성당의 복도와 내부를 장식하고 있다. 주로 신 · 구약성서의 주요 내용을 주제로 한 이 유리화는 사람들에게 친근감을 주며 다가온다. 작품 자체가 구상이기 때문에 일반 신자들이 이해하는데도 어려움이 없다. 유리화에 묘사된 인물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친숙한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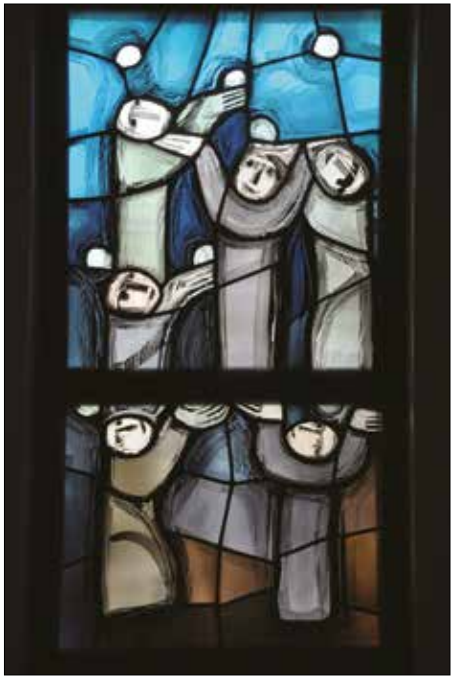
그 가운데서 성당 내부에 있는 『만나와 빵의 기적』이 눈에 뜨인다. 상단에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받으며 기뻐하는 모습이 표현되어 있다(민수 11,7-9참조). 하단에는 예수님이 굶주린 군중을 위해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배불리 먹이신 기적이 묘사되어 있다(요한 6,1-15참조). 이 유리화 아래에 있는 열두 바구니는 빵과 물고기의 기적이 당시의 사람뿐 아니라 후대의 모든 사람을 위한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을 알려 준다.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군중은 그분의 말씀을 듣는데 정신이 팔려서 배고픔도 잊어 버렸다. 예수님은 그들을 안타깝게 보시고 허기를 채워주고 싶었지만 미리 준비한 음식이 없었다. 그때 한 소년이 자신의 일용할 양식인 보리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왔다. 예수님께서는 소년이 건넨 양식을 받아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바치신 다음에 그것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셨다.

참으로 믿기 어려운 일, 기적 같은 일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빵과 물고기를 군중에게 나누어주었는데 음식이 떨어지지 않아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게 되었다. 모두가 먹고 난 다음에 남은 조각을 모으니 열두 광주리에 가득하게 된 것이다.

하느님의 큰 기적은 저절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한 소년의 갸륵한 사랑을 통해서 드러났다. 소년이 바친 작은 정성이 큰 기적의 재료가 되었다. 소년은 자신의 양식을 바침으로써 굶게 되리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기꺼이 굶주린 사람들 앞에 모든 것을 내놓았다. 소년의 이 갸륵한 마음이 하느님의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오늘날 사람들도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을 바란다. 지난해부터 겪는 코로나 전염병으로부터 하느님께서 구해 주실 것을 염원한다. 2021년에는 이 역병으로부터 벗어나 일상의 삶을 회복하기를 간청한다. 하느님의 기적을 바란다면 우리가 그저 수동적인 자세로 있어서는 안 된다.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개개인이 할 수 있는 선한 행동을 해야 한다. 우리의 작은 선행과 사랑을 통해서 하느님의 기적은 발생할 수 있다. 한 소년의 작은 봉헌이 하느님 기적의 통로가 되어 수많은 사람의 허기를 채워줄 수 있었던 것처럼.



가톨릭 직장인 후원금 안내

1. 개인 후원: 1구좌 당 70,000원
2. 교우회 후원: 1구좌 당 300,000원 (월보 뒷면에 광고 게재 가능)
3. 계좌번호: 우리은행 1005-501-784447, 예금주: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을 원하시면 사무실로 연락해 주세요.)
4. 문의: 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 02-727-2078, 010-4799-2078 /
   gikjang@catholic.or.kr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개인 후원:**
  김서원, 유시나, 애정희, 안규향, 박기섭, 부선정
* **교우회 후원:**
  관악구청

2021년 직장공동체 예비신자교리반 모집

바쁜 일상과 업무에 쫓기는 직장인들을 위해 직장공동체의 활성화와 비신자들의 천주교에 대한 관심확대 및 신자들의 재교육 등의 목적으로 직장사목팀에서 예비신자교리반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 세례성사 : 2021. 11. 21 (일), 13:30, 명동대성당 (예정)
· 접수마감 : 2021. 3. 12 (금), 17:00

교리 장소	교리 기간	교리 일시	인원
각 직장	4.12 ~ 11.12	직장별로 정함(주 1회)	10명이상

※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문으로 발송하겠습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명동밥집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마태 14.16

명동밥집은 한국 가톨릭교회와 서울대교구의 상징인 '명동'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이 따뜻한 식사를 함께 할 수 있는 무료급식소 입니다.

위치 : 명동 옛 계성여고 샛별관(학생식당) 1층
운영일 및 운영시간
- 주3일 운영(수, 금, 일), 15시 도시락 나눔
- 이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가능한 경우 현장배식 진행
주3일(수, 금, 일) 11:00 ~ 16:30

무료급식소 명동밥집 후원하기

신청방법 : 홈페이지 obos.or.kr **전화** 02-774-3488

명동밥집 후원계좌	예금주
우리) 1005-604-022962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기부금영수증이 필요하신 경우 무통장 입금 후 본부로 연락하여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를 꼭 알려주세요.
*기부금영수증 이중발급 및 허위발급에 대한 제재 강화로 기부금을 보내주시는 분 성함으로 발급가능합니다. 문의 02)774-3488

The coat of arms of a cardinal

The coat of arms of a cardinal is indicated by a red galero (wide-brimmed hat) with 15 tassels on each side(the motto and escutcheon are proper to the individual cardinal).

가톨릭 직장인 | 2021 .2 | 통권 285호 | 2021년 2월 1일 발행(월간 발행) | 천주교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_04537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3 교구청 별관 5층 Tel 02-727-2078 Fax 02-753-3792

www.catholicworkers.or.kr
Tel: 02-727-2078, 2080 Fax: 02-753-3792
Mobile: 010-4799-2078, KakaoTalk ID: gikjang
E-mail: gikjang@catholic.or.kr